

“조직 해체 이르기까지 지휘부는 뭐했나”

‘대통령 담화’ 이후 해경 직원들 당혹·울분 속 내부망 비난 글 쇄도

서해청 등 명퇴 신청자 급증

박근혜 대통령의 해양경찰 해체 담화 발표로 해경은 패닉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해체를 기정사실화하고 명예퇴직을 검토하는 경우가 급증하는가 하면, 무능한 지휘부에 대한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로를 비난하는 이전 투구 양상도 보인다.

21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수색 과정에서 미흡한 대응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데 이어 대

통령의 ‘해체’ 담화가 발표되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직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명예퇴직이 가능한 지를 묻는 직원들만 50명을 넘고 신청한 직원들도 출집아 30여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서해청은 명예퇴직 예산이 한정된 탓에 신청자 중 9명만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언 뒤 해경 직원들 사이에서는 무능한 지휘부에 대한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서해청 등 해경 내부게시판에는 담화 이후 “일방적이다”며 자조와 울분 섞인 글

과 지휘부를 비판·성토하는 글들이 100건 넘게 올라오는 등 폭주하고 있다. ‘(해체를) 겹쳐서 수용한다’는 김석균 청장에 대해서는 조직 미래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처신이라는 지적부터 “조직이 해체에 이를 정도로 지휘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도 잇따랐다.

국민 반응은 싸늘하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지휘부의 ‘승격 퇴선’ 지시 이행 여부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던 불행사나운 행태에 이어 또 한번의 추태라는 지적도 많다.

매뉴얼조차 숙지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안전 점검을 하는가 하면, 탁상행정식 종합훈련 등 ‘부실 덩어리’인 해경이 ‘내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담화 이전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해경 해체하십시오’라는 글은 담화 이후 ‘해경 해체 축하드립니다’, ‘해경 쇄고대죄 하십시오’, ‘해경 해체하면 고위 공무원들은 또 어떤 높은자리로 가서 임 작 당하시고 가만히 계시겠조’라는 내용의 글도 올라오고 있다.

다만, 목욕하 독도 경비와 위함을 무릅쓰고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에 대한 단속을 해온 해경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유병언 체포 나섰지만...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위한 검찰 체포조가 탄 차량이 21일 낮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금수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언父子 나타날까” 눈에 불 켜 경찰

신도집 잠입·밀항 가능성에 저녁모임 취소 첩보 수집...1계급 특진도 걸려

최근 유병언·유대군 부자 검거에 1계급 특진이 내걸리면서 광주 경찰관들이 각종 저녁모임까지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검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경찰이 21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였으나 유씨 부자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검·경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찰은 유씨 부자가 광주·전남에 나타나거나 지역 주요 항구를 통해 밀항을 시

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처에 나선 상태다.

광주서부경찰 소속 A경찰관 등 10명은 지난 20일 저녁 모임을 할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했다. 일부 참석자들이 유씨 부자 검거와 관련, 긴급 회의에 소집된 탓이다. 북부경찰 B정보관은 지난 19일 동료 간 모임을 아예 취소했다. 지역 내 유씨 일가 계열사 ‘다판다’ 직원 20명이 최근 경기도 안산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데 이어, 지역 내에 구원파와 관련이 있는 교회와 있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광산경찰 C형사도 이날 말까지 약속된 동료·친구모임을 줄줄이 취소했다. 유씨 부자 검거와 관련, 회의가 찾아인데다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저녁 모임에 갔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긴급 소집 연락을 받고 갔다간 1계급 특진은 커녕 자칫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에서다.

광주의 한 경찰 관계자는 “유병언 부자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출동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1계급 특진 뿐만 아니라, 세월호 관련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사건이기 때문에 전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수원 압수수색을 통해 유씨 일가 검거에 실패한 경찰은 이들 부자가 신도 집에 머무르거나 전국의 주요 항구를 통해 밀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국 검찰수사관 120명을 전담 검거팀으로 편성하고 추적에 나섰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4 해질 01:06
해집 19:34 달집 12:57

‘큰 일교차’

오후에 기온 크게 오르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4/30	보성	맑음	12/28
목포	맑음	14/24	순천	맑음	14/31
여수	맑음	16/27	영광	맑음	13/27
나주	맑음	11/30	진도	맑음	12/24
완도	맑음	15/27	전주	맑음	12/30
구례	맑음	12/31	군산	맑음	13/24
강진	맑음	12/27	남원	맑음	11/29
해남	맑음	12/26	흑산도	맑음	14/21
장성	맑음	11/3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	남서~서	0.5	
남해	앞바다	남서~서	0.5	남서~서	0.5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	남서~서	0.5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	남서~서	0.5~1.0

◇생활지수

식중독	70
운동	50
빨래	90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8:09	00:36
		20:39	13:33
여수		03:01	09:29
		15:42	21:35

◇주간 날씨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29(목)
☀	☀	☁	☁	☀	☀	☀
15/30	14/29	17/23	18/25	16/28	15/29	15/28

세월호 실종자 1명 발견...합동구조팀 3·4·5층 수색

세월호 참사 36일째이자 중조기 사흘째인 21일 소조기(23일)가 가까워짐에 따라 점차 조류가 약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민간군 합동구조팀은 적극적인 수색에 나서고 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전날 두 차례의 수색에서 추가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이날 오전 6시 24분께부터 수색을 시작,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발견된 여성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

현재 총 사망자 수는 288명, 남은 실종자는 16명이다.

이후 정조 시간대는 오후 1시 41분, 오후 7시 12분 등이다.

이날 수색에서는 민간 잠수사를 포함한 민간군 합동구조팀 123명이 대기한 상태에서 주로 3층 주랑, 4층 선수부, 선미 중앙 다인실과 5층 선수부 위주로 확인 수색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5층 선수에 있는 승무원 객실 통로와 중앙 객실 통로는 이날 초 일부 칸막이가 붕괴하기 시작한 이후 선체 약화가 심각해져 객실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박형기기자 hzpark@

운항관리 규정 허위 작성 청해진해운 직원 입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운항관리 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청해진해운 송모(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송씨는 청해진해운의 해무팀장으로서 일하던 지난해 2, 3월께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가 작성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는 세월호 재화중량(화물, 여객, 평형수, 연료유, 식수 등을 모두 합한 무게)이 한국선급의 검사 자료에 기재된 ‘3794t’보다 169t이 많은 ‘3963t’으로 적혀있다. 최대 화물, 최소 평형수, 기타 연료유 등의 무게는 표시되지 않았고 화물과 차량

의 적재 기준도 다르게 기재됐다.

운항관리규정은 안전관리, 화물적재, 항로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담는 문서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경이 최종 승인한다.

심사위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경, 인천해양항만청, 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통단 등이 참여하지만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고 해경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안전 점검 보고서도 조작됐다. 세월호 출항 전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제출된 ‘출항 전 안전 점검 보고서’는 선장 대신 승무원이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화물 적재, 구명 설비 상태가 모두 양호하다고 기재됐다.

/연합뉴스

Eco Dome House

에코돔하우스

웰빙시대와 친환경 건축자재의 선택!

에코돔하우스는 세계 유일의 레고 조립형(특허) 초경량 단열보드를 이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시공 가능하며 당사에서 생산하는 특허제품 이지골드코트의 성능을 고스란히 등에 접목시킨 **기능성 친환경 돔하우스**입니다.

에코돔하우스 기능성
불연 / 결로방지 / 원적외선 방출 / 음이온 발생 / 탈취 가능 / 항곰팡이 가능 / 항균 가능 / 복사열 방지 / 친환경 건축자재

대리점문의 본사 :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41-634-9909 / T. 010-7514-3266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

결혼정보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사석초등학교출업, 전주고등학교출업]

서울대학교홍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남 추천 회원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법리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 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추천 회원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법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재혼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